



센트럴윤길중안과, 개원 2주년 초청 강연

센트럴윤길중안과는 지난 10일 개원 2주년을 맞아 나로호와 누리호 엔진개발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영민 박사체전진 개발부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사진)

15일 센트럴윤길중안과에 따르면 한영민 연구원은 이날 '뉴 스페이스 시대, 우주발사체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 연구원은 강연내내 수없이 이어지던 실패를 견딘 후 성공을 이룬 과정, 오랜 시간 묵묵히 연구하고 개발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 강연에 참석한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윤길중 대표원장은 "개원2주년을 맞아 특별히 연속 3일간 특별한 행사를 마련했고 그 첫 번째가 한영민 연구원의 특별강연이었다"며 "광활한 우주에 길을 연 누리호처럼 대형안과가 물려 있는 메디컬 스페이스인 이 지역에서 열정과 노력을 다해 자리 잡아 왔다. 지금은 개원 2주년일뿐이지만 20주년이 될 때까지 더 열심히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산구, 중장년 고립가구 '라면왕' 선발대회

광주 광산구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가 최근 지역 1인 중장년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라면왕 선발대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사진)

이번 대회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중장년층 주민이 함께 음식을 만들며 소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로 마련한 행사다.

참가자들은 어묵, 황태, 숙주나물 등을 넣고 졸여 만든 볶음라면, 꽃게와 청양고추를 넣어 시원하고 얼큰한 맛을 높인 해물라면 등 다양한 재료를 결집한 특색 있는 라면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차돌박이, 대파, 양파를 활용해 한층 더 진하고 시원한 맛을 낸 이모씨가 송정1동 라면왕에 등극했다.

상품으로는 라면 2상자와 지역화폐 2만원권이 제공됐다.

기영철 송정1동 지사협 위원장은 "내년에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를 주제로 떡볶이왕 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며 "마을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시교육청,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협약

한국광기술원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한국광기술원 2층 대회의실에서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사진)

양 기관은 협약식을 계기로 지역 내 우수한 기술인재가 지속해서 육성될 수 있도록 상호 간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인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광주시교육청, 광주시, 지역 내 유관기관과 대학들이 협업체 지역 내 우수한 기술인재를 육성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광기술원이 보유한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지역 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다운 기자



동강대, '생성형 AI·ChatGPT' 활용 특강

동강대학교가 여름방학동안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펼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강을 마련했다.(사진)

15일 동강대 교수학습센터는 최근 전산교육관에서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AI 기술로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ChatGPT'는 대화형 AI로 입력한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한다. 이번 특강은 김진철 동강대 간호학과 교수가 'ChatGPT' 확장형 프로그램 설치를 비롯해 △글쓰기 △이미지 창출 △글 요약 △진로모색 △면접자료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지도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전 한밭대에서 '인공지능 시대, 삶의 질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삶의 질 연구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받은 바 있다. 강주비 기자



광주e스포츠교육원, '청소년 게임교실' 운영

광주e스포츠교육원은 지난 11일 용두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e스포츠게임교실 '함께 만드는 e스포츠 진로 사다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사진)

이날 프로그램은 e스포츠 분야의 직무세계를 알아보고 브롤스타즈 종목으로 가상 모바일 e스포츠 대회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e스포츠 산업 및 직무 이해하기 △e스포츠 진로 설계 △가상모바일 e스포츠 대회 기획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e스포츠 대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읍저빙과 게임 해설에 대한 직무 체험도 함께 이뤄졌다.

정영철 광주e스포츠교육원장은 "게임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e스포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청소년들이 e스포츠와 관련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허만 (주)디엠티 대표이사, 초록우산 리더클럽

초록우산 전남지역본부와 초록우산 순천후원회는 지난 11일 (주)디엠티 허만 대표이사를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 회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사진)

초록우산 그린리더클럽은 매월 정기 10만원 이상, 일시 1000만 원 이상 후원하는 후원자(개인/법인)를 대상 회원으로 위촉하는 후원자 예우 활동으로 초록우산 후원자 1%를 의미한다.

고호문 순천후원회 회장은 "초록우산과 함께 우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건넸다.

허만 (주)디엠티 대표이사는 "우리 주변 이웃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됐다"며 "어린이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나눔을 전파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찬 기자

인사

광주여자대학교

△부총장 정성일 △입학홍보처장 오재연 △국제교류처장 김혜정 △산학협력단장 임귀자 △평생교육원장 손병동 △교양기초교육센터장 한종희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조혜은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 강신영 △홍보실장 최연준 △송강학숙관

장 및 보건진료소장 유혜영 △경찰행정학과 학과장 박종렬 △유아교육과 학과장 김경란 △초등특수교육과 학과장 김영미 △간호학과 학과장 조인숙 △치위생학과 학과장 문상은 △보건행정학과 학과장 배상숙 △미용과 학부 학부장 김선형 △화장품과학과 학과장 민혜정

황제경호 논란... 변우석, 인권위 제소 당했다

배우 변우석(사진)이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됐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제소했다"고 썼다.

또한 민원신청을 완료한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인권위가 2003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상주직원이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 검색을 받아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접수한 민원 관련 '동의' 의견을 밝힌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시기 바란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해달라"고 촉구했다.

변우석은 5월 막을 내린 tvN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대세 스타로 거듭났다.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다가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경호업체는 인파를 막겠다며 공항 게이트를 통제했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했다. 해당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 '황제 경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호업체는 "승객들에게 불편을 겪 죄송하다"며 "(변우석) 최근 팬이 늘어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재발 방지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뉴시스

더보이즈, 월드투어 서울서 포문... "행복 돌려드릴 것"

그룹 '더보이즈'(THE BOYZ)가 서울에서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사진)

15일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더보이즈는 지난 12-14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D DOME)에서 '더보이즈 월드투어 제네레이션 II (THE BOYZ WORLD TOUR : ZENERATION II)'를 펼쳤다.

더보이즈의 월드투어는 지난해 개최한 '더보이즈 세컨드 투어 : 제네레이션 (THE BOYZ 2ND WORLD TOUR : ZENERATION)'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팬들이 몰렸다.

더보이즈는 이날 '다이아몬드 라이프(Diamond Life)', '환상열차(Out Of Control)', '매버릭(MAVERICK)', '서머타임(SUMMER TIME)' 등 30곡의 무대와 240분을 망라하는 세트 리스트를 꾸렸다. 특히 신곡 '바이트 백'은 팬들의 뜨



거운 반응을 자아냈다. '바이트 백'은 아프로비트가 가미된 힙합 곡이다.

멤버들은 팬덤 '더비'를 향해 "제 행복에는 늘 더비가 끼여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꼭 오래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큰 공연장을 3일 동안 꽉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며 "저희가 받은 행복 몇 배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별한 애정을 전했다.

월드투어의 첫 문을 성공적으로 연 더보이즈는 오는 19일 일본 정규 3집 '지버리쉬(Gibberish)'를 발매한다. 뉴시스

샤이니 태민, 팬미팅 성료...8월 솔로·첫 월드투어 예고

그룹 '샤이니(SHINee)' 멤버 태민(사진)이 팬미팅을 성료했다고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15일 밝혔다.

지난 13-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4 태민 팬미팅 [네버-네버] (2024 T A E M I N FANMEETING [Never-Never])'는 1년 여 만에 태민과 전 세계 팬들이 만난 자리였다.

'사랑인 것 같아(I Think It's Love)'와 '블루(Blue)'로 공연의 문



을 연 태민은 '더 리즈니스(The Rizzness)', '무브(MOVE)', '라이트(Light)', '원트(WANT)', '길티(Guilty)' 등 히트곡 무대를 선보였다.

4회차 팬미팅이 모두 끝난 지난 14일에는 오는 8월 발매를 앞둔 태민의 미니 5집과 월드투어 개최를 알리는 스포 영상을 공개했다. 뉴시스